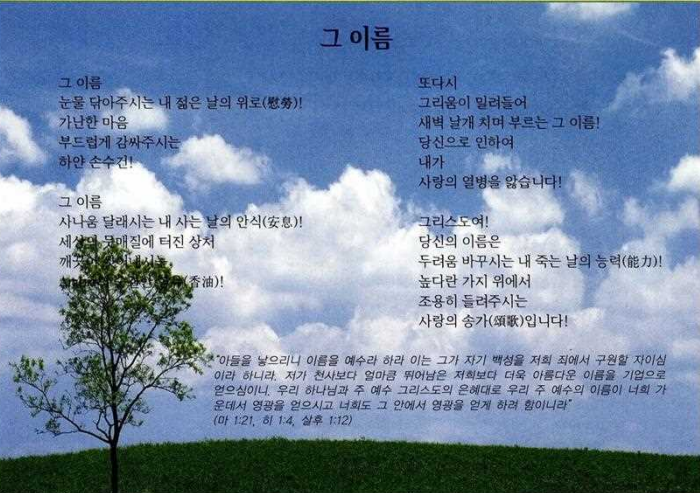




지난 수요일에 배사지

충 성(막 14:8)

마가는 누구인가? 그는 바울의 제자였다가 훗날에는 베드로의 제자가 되었다(벧전 5:13). 한 때 그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서 1차 전도 여행에 참가했다가 ‘밤빌리아’에서 돌아와 버리는 바람에 두 사람으로 하여금 심히 다투게 만들었고, 결국 두 사람을 갈라지게 했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행 15:37-39). 그러나 그의 다락방은 성령의 감람을 체험한 장소였고, 그는 결국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었다.

그는 14장에서 예수의 수난을 거의 다 기록하였다. 1, 2절에서는 예수와 그가 전하는 천국복음에 대하여 견딜 수 없어하면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는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기증함을 기록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 사이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에 동참하여 죽음을 예비하는 마리아의 항구성을 묘사했다. 또한 유다의 배반과 성만찬, 겟세마네의 기도과 체포당하는 광경, 그리고 예수께서 심문당하시는 광경과 옷을 찢는 대제사장의 연극 같은 음모, 수제자 베드로의 안타까운 부인 광경을 생생하게 모두 기록하였다.

종교의 제국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못지않은 열마나 위협적인 세력이 되는가? 이러한 종교적 힘에 그들은 로마의 세력이라는 세속적인 힘을 모았고, 그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것을 생각하면 타락했던 7C의 중세교회도 어쩌면 그렇게 매우실현의 종교 지도자들을 잃었지 않은가? 그리고 어느 시대이건 세속의 권력을 의지하여 힘을 과시하려는 종교 지도자들은 나타나기 마련이다. 아무리 생애보아도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음모와 포악의 도사로 변한 하나님의 성 제국실현 세속의 모든 힘과 권력을 힘입고 예수를 잡아죽이려고 음모하는 위험한 시각에 베다니 문둥이 집안의 집에서 한 여인이 아름다운 헌신이 피어났고 있었다(3a). 그곳은 예수실현으로부터 약 3.2Km 떨어진 ‘촌’이었다. 이곳이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그곳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곳이었으며, 인니 마르도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기르침을 듣던 곳이기도 했다(막 10:39). 그녀에서 그녀는 건강할 남자가 안식일을 무시하고 일년 내내 불한 품속에 해당하는 성 백 메리나온이 되는 ‘나드’ 한 옥물을 아낌없이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3절b). 조금만 뿌려도 상관없지만, 그녀는 예수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마음에 넘치는 헌신을 따라 전부를 부어바쳤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것을 거부하고 높은 자리를 요구하던 제자들의 머리숙음이 보이지는 그 순간에 그녀는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었다(8절).

마리아의 예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마리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가토 유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했다. 왜 이 바반 향유를 허비하였나고 그리고 처리라 거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좋았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은 그녀처럼 헌신하지 않으면서, 즉시 그녀를 향해 자기들 나대로의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참 사랑엔 어떠한 기준이 필요 없는 법이다. 왜냐하면 단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하고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뿐이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열매로써 게 말하는 의거 유다의 의도는 다른데 있었다. 요한 시도는 그런 가토 유다를 의심은 도저히이라고 했다(막 10:26). 그는 자신의 생각에 의거하여 그리스도를 따랐고, 헌신의 방법을 정했으며, 결국 자아의 욕심은 마조리의 유혹에 빠져 배신의 길로 접었다. 정지적인 흐름을 알았고, 대제사장 합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돈과세를 팔을 장도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최종적인 결정을 정치세력에 의존하기로 했고 그렇게 마귀에게 매달려 끌려 다니고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의 헌신은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도행전의 아나니아와 삽비바와 열마나 배사지전인!

주님께 그녀를 향하여 아름다운 말로써 반응하였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기념하리라고 하였다(9절). 그리고 주님의 말씀처럼 복음서마다 그녀의 헌신을 기록하였다(마 26:11-13, 막 14:9-10, 요 12:7-8). 그녀의 아름다운 헌신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그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순종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은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그리고 마리아의 생애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인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랑하고 경청하던 그녀는 그 말씀에 대한 학구적인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대로 헌신하였던 것이다.

당신은 누구인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따르는 마리아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아니면 자신의 견해와 판단을 가지고 원망하며 주님을 따르는 유다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를 알고도 도망치는 제자들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아무런 가진 것이 없을 것 같았으나, 자신에게 향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던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주신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마리아가 주님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드려지는 또 다른 마리아가 되기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배나 다 온 그리스도라’(엡 4:15).

신학 필독

교회의 절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절기를 지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 많은 절기 중에서 대표적인 절기가 셋이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출 23:14-17).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이 절기 때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야 했던 축제입니다(출 23:17).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혹독한 종살이에서 구원됨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과거 자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맥추절은 추수가 하나님의 보호하래 성공적으로 끝마침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백성들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한해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해주었고 현재도 자신들의 생업을 주장하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것입니다. 수장절은 오막집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 광야 40년의 여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보호와 인도를 근거로 하나님께 미래의 생활까지도 계속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믿는 신앙적 절기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에는 몇 가지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이 있습니다. 부활절이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은 일년 동안 생업을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날이고, 성탄절은 하나님인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절기를 제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거 하나님에 의해 구속받았으며 이제까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왔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이러한 절기들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게함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담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 아니라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늘 그 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윽진 목사(6교구지도)

김재명 장로에 대한 '정보로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함으로 종결

제명 출고 당한 김규중·김시주·이동명과 김성길 이 서울지방법원에 고소한 김재명 장로에 대한 장로직무 집행정지 가처분의 건은 지난 6월 4일자로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을 결정함으로써 사건이 종결되었다.

가각의 이유는 시무장로라는 직위는 “교회 내부에서의 종교적인 자리에 불과한 뿐이 아니 그것이고 개인 개인의 구제적인 권리의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또한 가처분을 발령하지 아니하면 고소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급박한 손해가 생긴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교회를 열고, 성도간의 분열을 조정하려는 여러 시도를 있었고 심지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사태까지 이어졌으나 이번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로 고소인들의 분분없음과 무리함과 불법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다.

이제 교회의 화합을 깨뜨리고 주의 일을 강하게 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한 일에서 벗어나 주께서 명하신 생명의 길에 모두가 한 마음을 한뜻으로, 힘있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도록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정기제직회 오늘 찬양예배 후, 본당에서

Wonderful Challenge

(Joshua 1:1-6)

“Only be strong and very courageous;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e law which Moses My servant commanded you;
do not turn from it to the right or to the left, so that you may have success wherever you go.”

After the death of Moses, God spoke to Joshua, Moses' servant (v. 1). His words represented a wonderful challenge to Joshua and all the people of Israel. They were to embark on a new venture, into a new land, with a new leader. You'll recall that Moses was the great hero and leader who God used to save Israel from their Egyptian captivity and slavery. He was the one who directly received the Law from God. He was a true servant of the Lord. He was such an important figure to Israel that his death seemed like God's domain was finished. But look at John 1:17, "For the Law was given through Moses; grace and truth were realized through Jesus Christ" (Jn. 1:17). Amen! Which one is better? Unreservedly, grace and truth! Like Jesus, Joshua personifies God's new direction. Just as Jesus substituted for the Law, Joshua replaced Moses. Even though Moses died, a new chapter started through the life of Joshua.

God gave Joshua a command for the challenge. He said, "Moses My servant is dead, now therefore arise, cross this Jordan, you and all this people, to the land which I am giving to them, to the sons of Israel" (v. 2). God told Joshua to get up, get over, and get going. He was to start leading God's people into the Promised Land. Indeed, Joshua remembered Moses' words regarding this day. "Then Moses called to Joshua and said to him in the sight of all Israel, 'Be strong and courageous, for you shall go with this people into the land which the Lord has sworn to their fathers to give them, and you shall give it to them as an inheritance. The Lord is the one who goes ahead of you; He will be with you. He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Do not fear or be dismayed'" (Dt. 31:7-8). Moses' prophecy came to fulfillment on this glorious day.

God also gave Joshua a promise

with the challenge. He said, "Every place on which the sole of your foot treads, I have given it to you, just as I spoke to Moses. From the wilderness and this Lebanon, even as far as the great river, the river Euphrates, all the land of the Hittites, and as far as the Great Sea toward the setting of the sun will be your territory" (vv. 3-4). What enormous feet Joshua must have had! Are your feet small or big? Isn't it remarkable that every place Joshua's feet stepped on was given to him? Can you imagine such a blessing? God also promised, "No man will be able to stand before you all the days of your life. Just as I have been with Moses, I will be with you; I will not fail you or forsake you" (v. 5). What a promise! God was with Joshua in every way and in every situation.

Joshua was from the tribe of Ephraim. His name was Hoshea but Moses called him Joshua (Num. 13:8&16). He was one of the twelve spies sent into the land of Canaan to scout it out. The report that came back from all the spies was factual; the land was fruitful, the cities were fortified, and the people who lived in it were strong. Sadly, ten of the spies interpreted this information to the congregation without faith and caused the congregation to fear their situation and doubt God's promise, but "Joshua the son of Nun and Caleb the son of Jephunneh, of those who had spied out the land, tore their clothes" (Num. 14:6). They believed God and brought a good report before the congregation, but nobody believed them. The congregation sided with the ten who gave a bad report. So, Joshua and Caleb lost the debate. But here, in today's Bible verses, Joshua is given the order to conquer Canaan. Amen!

Indeed, there are struggles with every challenge. The land of Canaan was occupied with strong, big people. Many of its cities were protected by

high stone walls, like Jericho. It's exactly the same thing in today's Christian life. We have inner struggles. Why? Because we are living in a world filled with sin. Look at 1 John 2:15-17, "Do not love the world n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boastful pride of life, 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The world is passing away, and also its lusts; but the one who does the will of God lives forever." Amen! Do you believe it? There are struggles in Christian life. The Israelites didn't have weapons; they didn't even have experience as warriors. For the last forty years they had been traveling around in the desert. Prior to that, they were Egyptian slaves. They only believed in God's Word.

Reality presents a different picture. The people of Canaan were big in size and physically healthy. In comparison, the Israelites were small and tired. The Canaanites had weapons and the Israelites didn't. God said that the Israelites would conquer Canaan. Through human eyes Canaan appears totally unconquerable. It seems like an absolutely impossible challenge. "Now the deeds of the flesh are evident, which are; immorality, impurity, sensuality, idolatry, sorcery, enmities, strife, jealousy, outbursts of anger, disputes, dissensions, factions, envying, drunkenness, carousing, and things like these, of which I forewarn you, just as I have forewarned you, that those who practice such things will not inherit the kingdom of God" (Gal. 5:19-21). Indeed, these are things we all struggle against. There is a battle within every believer between the flesh and Spirit. It is a spiritual war.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powers, against the world forces of this darkness,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wickedness in the heavenly places" (Eph. 6:12). All stress comes from the devil using our physical nature. Don't you experience this kind of problem? Can you imagine the Israelites inner struggles at this time?

The Israelites were tired, they had journeyed forty long years in the desert. The devil was using their physical weakness to make them wonder whether or not they could win and conquer this land God's had promised them. They had deep struggles but a clear order, "Be strong and courageous" (v. 6). That's God's order! Even if they were slaves, without an education, without a strong leader (Joshua was eighty at the time), and weak, they had the power of God, the presence of God, and the promise of God. Joshua stood up in the midst of stress and confidently obeyed God. He moved forward in faith, total faith. For those who walk by faith, who walk by the Spirit, can overcome the flesh.

My dear friends, the Lord Jesus Christ is always in front of us. He is always preparing our way and doing everything that needs to be done. Salvation has to start first, then the victory is ours. Let's go forward in faith. There's not any kind of enemy that can stand against us because of our Savior. He is the one that leads us. The Lord asks you to face this wonderful challenge. He gives you commands that entail struggles. Just remember His words, "Be strong and courageous". How? By faith. His power, presence, and promise will never fail or forsake you. Let's travel the Calvary way, the way of resurrection and glory, God's way! Only by faith can we do it! 



김성관 목사

놀라운 도전

(수 1:1~6)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여호수아를 찾으신 하나님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은 모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4:1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새로운 땅으로의 새로운 모험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애굽의 종살이와 노예 생활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쓰임 받은 위대한 영웅이요 지도자였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참된 종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것과 같이 느껴지게 할만큼 이스라엘에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7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누가 더 나은습니까? 출석하게 말하자면 은혜와 진리가 더 나은답다. 예수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지시를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곧 예수는 율법을 대신하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대신한 것입니다.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새로운 도전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도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 건너 내가 지금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2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날을 위한 모세의 유언을 기억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전호와 그가 내어 주지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나니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신 31:7-8). 모세의 예언은 이 영광스러운 날에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약속

하나님께서도 또한 여호수아에게 도전과 함께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옛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편 때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3-4). 여호수아는 정말 커다란 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발은 큼니까? 작습니까? 여호수아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강소를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주목할만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5절).”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리고 약속대로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호수아의 과거

여호수아는 예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그의 이름은 사실 요세아이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민 13:8-16). 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선봉반 12명의 정탐꾼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정보들은 모두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땅은 비옥하고 성들은 튼튼하며, 그곳에서 사는 기민들은 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열 명의 정탐꾼들은 믿을 없이 이러한 정보를 회중에게 말해주었고,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에게 다가를 상항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너는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뜻을 행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의 보고를 회중에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회중은 악평을 한 열 정탐꾼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논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를 향한 도전

실제로 모든 도전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강하고 큰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여리고와 같은 많은 성읍들은 돌로 높이 쌓은 벽에 의해 보호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오늘날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내적 싸움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1서 2:25-27을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람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 온 것이라, 이 세상에,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기독교인의 삶에는 싸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로 없었을 뿐 아니라, 전사들과 같은 전쟁의 경험도 없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들은 오직 사막을 돌아다니기만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애굽의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싸움

현실은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강건했고 안장을 누리고 신 각과는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체구도 작고 매우 지쳐 있었으나,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무기가 있었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땅은 전혀 정복할 수 없는 땅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절대 불가능한 도전처럼 보였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수사 음행과 술수와 환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함과 당 찌는 것과 분리와 함과 이단과 무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이와 같이 참으로 우리 모두가 투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육과 영 사이에서 벌어지는 전투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쟁

점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항이라”(엡 6:12). 모든 갈등은 마귀가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스라엘이 겪는 내적 갈등에 대해 상상이 가십니까?

성령을 따르는 믿음의 길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여행하느라 지쳐있었습니다. 마귀는 그들의 육체적 약함을 이용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의 정복에 대해 의심이 생기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깊은 갈등에 빠졌지만 명확한 명령을 받았습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6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비록 그들이 교육받지 못하였도 강한 지도자도 없는(여호수아는 당시 80세였습니다) 노예 출신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등의 한 가운데 우뚝 서서 자신 있게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는 믿음, 곧 순종한 믿음 안에서 전진했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 즉 성령에 의해 걷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어야 할 길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먼저 구원이 왔고, 그 다음에 승리가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믿음 안에서 나아갑시다. 우리의 구세주로 인해 그 어느 적도 우리를 맞서지 못합니다. 주께서는 여러 분께 이 도전에 강하게 맞서라고 하십니다. 그 분은 여러분에게 사용이 따르는 명령을 주십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어떻게 말입니까?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그 분의 능력과 임재와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과 영광의 길, 갈보리 길, 즉 하나님의 길로 우리 나아갑시다. 오직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나은지 전국갈 수 없었어요

학원 전도

장 덕훈 (소년부 교사)



숨겨진 대륙,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를 들어본 사람은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인구 2억 5백만 명의 화교권 최대의 나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들로 구성된 섬나라이지만 세계4위의 인구로 2.1%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화교와 같은 나라이다. 이 수많은 영혼들의 87%가 회교도로서 인원수로는 단연 최대의 회교국이다.

이 나라에도 카톨릭과 개신교를 합쳐 10%의 크리스천들이 그곳에 있다. 하지만 현재는 크리스천들과 무슬림들이 대립하고 있고 무력 분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현재 외신부에서는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 형제들이 출석하기 시작하여 현재 30여 명의 형제, 자매들이 출석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도 예배와 말씀을 위한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3년 전에는 한 사람의 인도네시아 형제를 출석시키기 위하여 용인이나 천안 등 먼 지역까지 찾아다니며 양육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 곳에서라도 그들이 스스로 교회를 찾아 오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크리스천이었던 형제들은 믿음을 키우나가고, 무슬림인 형제들은 새롭게 복음을 전해드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가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2.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이 믿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3. 인도네시아 형제, 자매들이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4. 이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선교위원회)

세계 선교지 정보-4

세계 4위의 인구를 가진 인도네시아 (Indonesia)

인도네시아의 9,500,000에 걸쳐 13,000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인도네시아. 인구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다.

수마트라, 자바, 지역에 화교가 강하여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회교국으로 인 줄려는 시도도 있다.

1965년 공산주의 쿠데타와 회교도의 보복으로 50만 명의 공산주의 추종자들이 죽었다.

이로 인해 공산주의자, 명목상 회교도를 이 하나님께 돌아왔다.

영적 전투가 인도네시아 특히 자바섬을 휘둘러 있다. 회교도들은 폭동, 괴뢰화, 기독교인 박해 등을 일으키고 있다.

회교 극단주의자들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교회의 성장에 비해 목회자의 자질이 낮고 기독교 전통적인 신비주의와 혼합된 양상을 띠고 있어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삼라만사에서 지리적 문제, 복잡한 행정구역, 언어의 다양성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선교사들에게 비자를 발급하기 어렵고 있다.

그렇게 때문에 인도네시아는 사립가, 교사, 학생의 신분으로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과 기독교 문서 선교가 절실히 요구되나 값이 비싸고 운송요금이 적잖아 비싸 문제점이 되고 있다.

약 150만 기독교 가정에 한 편의 성경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현교회 아프리카 A국 선교사 기도제목

* 아프리카 A국에서 사역하시는 강 기업 협력선교사가 말라리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균이 뇌에 침투하는 위험한 종류라고 합니다. 또한 지난번에 말라리로 고생하던 권요셉 선교사 신도선교사가 지방 사역 도중 다시 말라리아에 걸렸습니다. 한달을 쉬어야 한다고 하는데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 중단되어 걱정이 라고 합니다.

1. 말라리아로 힘들어 하는 강기업·권요셉 선교사들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2. 고통 속에서 참 평안을 갖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3. 주일학교 교사 권려트스와 지방 사역에 교사의 선한신 의도대로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사는 우리 선교사들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충현의 성도들 각자가 '보내신 선교사'임을 잊지 말고 기도, 그들의 사역을 중보해야 합니다.

교회생활의 의미

김정윤 (대학부 4학년)

나는 모태신앙으로 중학교 때까지 줄곧 교회만 출석했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서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맘이나 나아갈 방향을 알지 못한 채 살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조금씩 다가가 주셨고 대학부라는 곳을 섬기게 하셨다. 교회출석을 할 땐, 했던 나에게 대학부라는 공동체가 처음엔 너무 낯설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고 내향적 성격이어서 사람들 안에서 서 가는 것이 두려웠다. 특히, 평일에도 리더들로부터 걸려오는 안부전화 등 영혼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길과 사랑의 맘이 웬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벨렌 성가대라는 곳에서 찬양으로 봉사하게 하고 말씀으로, 기도로 달린 맘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셨다.

그후에 군대에 들어가서 다른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 지체들도 있는 반면, 낙약하고 지친 영혼들을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근무를 하고 신우회라는 공동체에서 주보편집을 하면서, 말씀을 나눌 때 늘 밤 속에 도전적으로 다가온 것은 사람을 향한 맘을 품게 하는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마 6:33)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귀한 가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시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대학부에서 기도로서 깨어지고 단련되길 원한다.

이제 나는 조장으로, 그리고 병원전도사역을 함께 하고 있다. 리더로서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무겁고 큰 자리이며 먼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깨어려야 함을 안다. 솔직히 나에게 리더라는 자리가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전에 나의 조장들이 영혼을 사랑하여 전파심령을 하면서 품었던 것이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다.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체하심을 느끼고 싶다. 깨어지고 상한 마음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귀한 도구가 되고 싶다.

병원에서 전도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의 힘이나 지식으로써가 아니라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알고 나가길 원한다. 아버지가신 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나 역시 내 모습을 낮추고, 다른 영혼을 품는 과정 속에 참된 진리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기대로 부응하는, 그분께 붙잡힌 바 된 자로서 커나가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해 본다.

(원문)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불려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불리고
(원문) 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불려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불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불려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불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불려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불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버지께 불려 자녀를 기뻐하시는데 불리고



문과 및 아이디어제공 : min74@jaangminn.com

2001. June. 10

Cartoon by JaangMinn

세상 속에 있는 교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교회

최 준 호 (대학부 간사)

우리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일은 반드시 교회가 날이 되었다. 이것은 늘 원칙이었다. 그래서 주일에 있는 각종 학교 행사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못했다. 아직 철들지 않은 시절이었어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 노는 것이 좋았지만, 주일은 주님의 날이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잊지 않았다.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하여 참된 진리를 듣고 이해할 수 있었다. 참으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다. 교회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는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회사회, 학교도 아닌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사신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에서는 모두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부한자 가난한 자나 많이 배웠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힘이 있거나 약하거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존재들이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한다. 그 제자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고 섬기신 예수님. 교회를 다닌다는 말보다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말한다. 주님이 세우신 지금의 출현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

오늘도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지체된, 나의 사랑하는 영적 가족을 만나는 대학부 집회와 그 모든 활동이 기뻐되기에 소망이 되지는 삶을 산다. 나의 평생의 기업인 교회를 주님이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 역시 사랑하고 사랑할 것이다.

인애자매의 편지를 실으면서...

위임 목사님 앞으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예수전도단(YM)'이라는 단체를 통해 스웨덴에서 DTS훈련을 받고 있는 인애라는 학생이었다. 인애는 대학부 시절에는 필참으로 중등2부에서는 교사로 함께 일하기도 했었다. 시종기를 지나는 '중등이' 아이들에게 눈높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모습이 기억난다. 아마 올해 초쯤에 DTS 훈련을 받고 심더마 추천서를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벌써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간접적으로나마 훈련에 잘 참여하고 있는 인애를 보면서 감사의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지매가 보낸 편지를 통해서 '문화'와 '세계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벌써 7, 8년을 흘렸다고 생각되는데, 선교사와 문화인원학자인 '폴 허버트' 교수의 세미나를 통해서 복음과 문화에 대해 참 심각하게 도전 받았던 적이 있었다. 만일 한국의 문화와 예수를 믿고 복음을 해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한국적인 토착종교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었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한국적인 문화와 세계관으로 예수와 복음을 이해하고 해석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성경적 세계관 또는 복음으로 한국의 문화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한국은 단일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단일 민족이어서 문화적인 차이를 경험할 기회가 아주 적다. 그래서 문화와 세계관이 복음에 미치는 위험성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 교회는 이것에 대해 가르치지 않았다. 문화와 세계관은 선교 현장에 나가면 즉시 부딪히는 문제였지만 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시켰던 주제였다.

아마 인애는 여러 민족의 문화와 세계관에 공존하는 공동체에서 생활하며 문화적인 충격을 겪었던 것 같다. 특히 복음에 대한 문화의 위험성을 체감한 것 같다. 그리고 한국적 사고와 문화로부터 벗어나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 같고, 다. 인애의 편지를 읽으면서, 임으로 주권총련을 통하여 '복음과 문화'에 대해 소개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세계선교를 꿈꾸고 있는 청년의 젊은이들이 '복음과 문화' 그리고 세계관을 선교 현장에 나가면 즉시 부딪히는 문제였지만 늘 선교사들에게만 국한시켰던 주제였다.

(주권총련 편집실-김희연 목사)

김성만 목사님께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간간히 들리는 교회소식을 보면 나날로 교회가 안정되어 간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날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회(배우)로, 예전에 가끔 친구들과 놀러간 적이 있었던 그 대학부 학생으로 한 편지를 씁니다. 기억하실 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지금 스웨덴에 있는 선교단체(YWAM)에서 복음화와 스킨디나비아 반도를 위해 기도하고 훈련(DTS)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께 편지를 쓰는 이유는, 주님께서 편지를 쓰면 좋겠다고 하셔서요. 저도 잘 깨닫지 못한 여러 것들을 정리하고 싶어서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는 주님에게 친히 정리하신 일들을 갖고 다시는 매이고 싶지 않기도 해서 말이지요. 목사님과 함께 했던 만년 두세 번의 만남은, 성경전서에서 적적으로 인도하셨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를 통해 주님께서 저의 여러 생활을 적절하게 격려하셨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한국 문화배경 밖에서, 한국이라는 관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동안 우리가 모면적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가치체계가 얼마나 인간적 요소를 위해 국한되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인재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과 생생함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모든 대에 충성케 여기게이다. 문화라는 대에 밑에서 서는, 성경전서에서 적적으로 인도하셨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를 통해 주님께서 저의 여러 생활을 적절하게 격려하셨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목사님, 한국 문화배경 밖에서, 한국이라는 관점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동안 우리가 모면적이라고 말했던 믿음의 가치체계가 얼마나 인간적 요소를 위해 국한되어 왔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로운 인재를 만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기쁨과 생생함으로 전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모든 대에 충성케 여기게이다. 문화라는 대에 밑에서 서는, 성경전서에서 적적으로 인도하셨던 시간이라 생각합니다. 그 때를 통해 주님께서 저의 여러 생활을 적절하게 격려하셨던 것들이 생각납니다.

내 입술의 찬송

찬양을 통해 받는 은혜

이 경재 (집사, 3교구, 가브리엘찬양대원)



따로~ --

새벽을 깨우는 알람소리!

가브리엘 찬양 대원들은 주일 1부 예배의 찬양을 위해 목요일 저녁 2시간과 주일 새벽 1시간, 주일 및 2시간 연습을 한다. 찬양의 성세하고 완벽한 지도는 마치 정교한 금세공가 같이서 최후대원을 긴장시키고 찬양 속으로 흡입시킨다. 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려 애쓰는 대원들의 표정은 진지하다. 목에 집착할 것만 같다. 그러한 연습(훈련)을 통하여 드러지는 예배 찬양 속에서 콧등이 뜨겁고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통하여 진정 하나님에 살아계심을,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찬양을 부르는 나에게 감동 주심을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맛(?) , 멋(?)이라 할까? 진정한 찬양 대원으로서 공교한 찬양을 드러려 하는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난 98년부터 기억되어지는(가브리엘찬양대가 찬양단) 부활절 음악예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자들이 "바나바! 바나바!"를 외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게 했을 때, 들러오던 그 당시로서! "왕! 왕! 왕!" 지금까지 생생하게 귀에 맴도는데... 그 당시 나의 죄를 말한게 아니라 회개케 하고요 결심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모든 대원들을 호느려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매년, 그리고 금년의 별일, 고공부 연합 부활절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느끼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음은, 평신도보다 더 섬세하게 느껴지는 찬양 대원으로서의 특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이러한 감사함 속에서 주일 1부 예배 찬양을 드릴 때마다 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통하여 영광 받으소서! 찬양에 같이 동참하는 회중과 지체에게, 완연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소서! 이 찬양이, 아직 잠에서 깨어 나지 못하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게 하사, 주님의 잔치 잔치를 통하여 성령이 새롭게 변화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끝으로, 공교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열심, 충성, 헌신, 봉사하시는 가브리엘 찬양 대원 여러분! 그리고 모든 찬양 대원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 양호실

연약한 지체들을 위한 중보기도가 긴급히 요청됩니다.

10교구 최성연 장로(남61세) 장영으로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수술 후 빠른 회복과 장이 더욱 깨끗해 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병주 집사(남73세) 뇌졸중으로 수년 동안 병상에 있습니다. 하루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윤순 권사(여82세) 고관절 부상 후 거동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권사님을 위해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연약한 환우들을 돌아보며 그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진정어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김 재수 (집사, 5교구)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쉬지않고 갈급하니 내 영혼이 갈급함같이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피וע요" (시 42:1-2)

작년 2월, 건강했던 몸이 이상이 생겼다.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더니 가슴이 나빠졌다. 서서히 병이 들고 있었던 것이다. 4이이 4월에는 종합 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받았다. 비인두암이었다. 뇌 밑쪽에 종양이 있어서 수술도 받지 못하고, 암세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방사선 치료로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한 달에 한 번에 입원해야 했고, 집과 병원을 왔다갔다 하기를 5차례나 거듭했다. 딸이 밤에 병원을 했기에 내 주변에는 그 누구도 없었다. 이러한 외로움과 육체적 고통을 함께 감당하면서도 힘든 항암 치료를 견뎌 수 있었던 것은 내 곁에 여전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신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지금은 비록 아직 종양이 있어 지난달 17일에 다시 입원해야 했지만 이 악과의 전쟁에서 나의 함께 걸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내 영혼을 맡긴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함께 해 줄 때 이시오니 나를 위로하소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상처로 지쳐 있는 내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이 아픔을 통해 나를 더욱 강건케 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김재수 집사님은 목이 아파 의사 진찰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간병하는 딸을 통해 집사님의 심정을 대신 하였습니다. 현재 김집사님은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해서 영양 주사만 맞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할법음을 예방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환우입니다. 위로와 나눔에 각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노영환 (집사, 1교구)

결혼해서 자식을 길러 보아야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합니다. 저도 3자녀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기르면서 즐거움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안타까웠던 일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24년전의 한 조그만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딸이 8살, 아들이 6살과 4살일 때입니다. 큰 딸이 동생들을 데리고 동네 가난한 교회에 다닐 때입니다. 그때만 해도 국민소득이 1,000을 넘지 못했더니 매주일엔 못하고 월기에만 4살짜리가 다니는 유치부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날도 누나와 형이 끝나고 동생이 기다리는 유치부에 오니 막내가 힘이 하나도 없이 나오며, "오늘 유치부에서 사랑 주었어, 형하나 누나하나 먹어" 하면서 땅에 녹은 사랑 2개를 주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거창할 때니 형과 누나는 얇은 입에 넣고 먹으며 형과 누나를 보고 있는 동생에게 "나는 먹었나?" 하고 물으니 그때마다 참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유치부 전도사님 설교가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는데, 손에 땅이 많으니 이는 포마가 포장도 안된 사랑 2개를 꼭 먹고 "하나님, 주님과 형과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사랑 2개가 3개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하고 간절히 정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생과 끝에 저는 먹고 싶은 것을 참고 형과 누나가 오기를 기다려 형과 누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을 먹고 싶은 마음을 참고 형과 누나는 오기를 기다려 형과 누나가 기쁘게 먹는 것을 바라며 기다리는 시간에 포마의 마음은 어떠 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고 한 전도사님을 믿었던 생각이 납니다.

4살 포마가 자라서 이제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아버지날에는 그에게서 값비싼 T셔츠와 바지를 선물 받았는데 24년전 제가 먹고 싶은 것을 참고 누나와 형에게 사랑을 주는 4살 포마의 따뜻한 마음을 선물 받을 때만큼 기쁘고 감격적이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의 간절한 기도는 들어 주시지 않았지만 가슴 벅치는 기쁨을 부모에게 선물하였고, 24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그때 일을 이야기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더욱 깊어지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는 다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리저리서 어떤 것이 순진하게 전도사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했으니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달랠까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2개를 3개로 만들어 주신 것으로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한번 먹고마는 사랑보다는 지난 24년간 또 앞으로도 오랜 동안 우리 가정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게 하는 포마가 기도하지 않은 것. 더 좋은 것. 우리 가정에 정말 필요한 것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신 것을 알게된 것은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습니다.

'세 계명을 주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체휼적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한 번 하고 한 번은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도 미워하고 무관심하게 되니 역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어야 자매누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가족을 소개합니다

'박 경 남' 성도를 소개합니다

1남2녀중 장남. 음악 감상과 농구가 취미. 전남 광주구 교향. 큰 목표를 갖고 서울에 온 27살 청년입니다. 친척의 전도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도 크고 웅장하여 정말 큰 교회구나 생각이 들지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직 목사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경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서로의 만남을 통한 교제 시간이 강제로 남으며 특히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기억에 납니다. 믿을 생활 잘 하도록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고 찬 길' 성도를 소개합니다



이북의 평남 평원이 고향. 모태 신앙. 18세 때 군에 징집 당해 포로가 되어 남한에서 새 삶을 살게 되기 까지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고 있으며 지금 혼자입니다. 교회로써는 출현 교회가 있을 때 가끔 나오셨기에 비교적 낯설지 않습니다. 부모 동기간과 떨어져 낯선 곳에서 53년전 삶, 담배 끊지 못해 교회와 멀어졌지만, 가슴에 늘 교회를 생활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모태 신앙이었지만 53년만에 삶, 담배 끊고 앞으로 열심히 철저히 주님 믿기로 결심하고 나섰으며 새가족부 목사님께서 가슴에 꼭 들어오도록 알기 쉽고 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기억에 납니다. 평생인 최치로 님과 함께하신 간절한 권유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의 평안을 구합니다.

할레 받는 아이들

김성겸 (전도사, 중동2부 주교)

유대주의자들은 "내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당연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갈라디아인들을 혼란시켰다. 한마디로 진화 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바로 할례 받은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이다. 이때 바울은 정말 열렬히 반박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이 주신 믿음을 통해서 온 것이지 할례로 된 것이 아니라 참 백성 됨의 증거는 오직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사실뿐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의 어린 학생들에게 교회 생활에 대해 여러 가지 지침들을 준다. 예배 시간에는 부동자세로 앉아서 입 꼭 다물고, 정숙한 자세로 예배에 참석 해라, 등은 쓰지 말라, 헌금은 꼭 새 돈으로 챙기라와, 교회 내에서는 장난치지 마 라, 교회에는 쓸데없는 물건 갖고 오지 마라 등등. 그리고 그밖에 평소 생활에 대해 가르친다. 성령은 몇 가지씩 일을 것이지,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할 것이지, 이와 같은 신앙 생활에 대한 지침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대로 다 잘 행하면 신앙이 좋고 작 하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좋지 않다고 단정한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신앙 행위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가름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어떤 날 성경을 한 장도 못 읽으면 자기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닌 것 같고, 그러 다 또 다른 날 성경을 많이 읽으면 자기 자신이 신앙 좋은 참 백성이라고 느끼는 것 이다. 아이들은 그들의 교회 생활, 또는 종교적 생활이라는 행위가 그들을 그리스도 인으로 증거한다고 배우며 자라서, 그들을 그렇게 가르친 우리와 똑같은 어른들이 되어 가는 것이다.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실을 통해 스스로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확증하 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참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고 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믿음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성령 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오직 그 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뿐이다. 에수를 만나고 장모로 믿는 그 순간 내리우시는 성령,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은 에수를 만나기도 전에 신앙의 행위를 배우고 있는 것 같 다. 그리고 에수를 만나고 상관없이, 신앙의 행위로 스스로를 기독교인으로 정의하 게 되는 것 같다. 그렇지만 에수를 먼저 만나도록 도와주는 교육이 없이 이런 신앙의 행위들을 먼저 가지고 강조하는 경우는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으로 교회생활을 하느냐보다 더욱, 그들 이 에수를 만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래서 에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안에 성령 이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흘러나오는 참 성령의 열매들을 맺도록 그들을 돕는 교육 을 해야 할 것이다.

덴지라 해서 더졌더니...

한성희 (집사, 중동2부 주교)

'그물을 배 오른 편에 더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4월부터 중동 2부에서는 요란한 전부소리가 들렸다. 10명의 정탐꾼을 세우듯 전 부한 10명의 교사들을 최전방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기도소리가 들리기 시작했 다.

3주에 걸쳐 전도할 친구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첫번째 미술비 편지를 발송했다. 이 편지가 아이들에게 도착하기 전에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간구했다. 두 번째 편지, 세 번째 편지...

전투가 무익이랄 수록 교사들에게 주의 능력의 힘이 가해졌다. 바쁜 손을 움직 이며 전도지에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고, 이 전도지를 받는 아이들의 마음이 입 속에 서 살피며 녹는 사랑처럼 녹아낼 것을 믿었다.

종례시간을 마치고 쏟아져 나오는 저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정문 과 후문으로 소대를 편성했다. 내리쬘는 5월의 태양별은 내 이마를 적시기에 충분했 고 흥분한 마음은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었다. 사랑을 먹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고 약속 아닌 약속을 해 놓고 학교 골목길을 돌아서서는 바람에 펄구 는 저 전도지들...

서로서로를 격려하며 이번에는 새 팀으로 소대를 편성했다. 교회에 나옴 것을 약속하는 모습, 또 부지런히 아이의 연락처를 적어가는 모습, 그 중에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아! 분명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찾기 위해 애쓰는 저 모습들을 보며...

집에 돌아와 다시 수화기를 들고 낮에 만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똑 똑 끊어지는데 믿지 않는 부모님의 응답과 거짓으로 가르쳐준 피조자 전화번호가 나 에게는 남아야 할 장벽이었다.

그러나 탕탕탕 새 발의 총성은 적군을 물리치기에 충분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인데 이렇게 153마리 되는 켜어진 배 오른 편이 그들이라니... 준비한 선물은 돌이 나 예배실 안은 환한 그늘 아니었다.

구원의 메시지는 목사님을 통해 형제가 선포되었고 새 친구들을 위한 축하 찬양은 한층 더 잔치를 고조시켰다. 포도주가 모자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듯이 나누어 줄 주 보도 동이나도 많았다.

덴지라하여 더졌더니 됐더니 이렇게...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랑이며 축복이라고 두 손을 높이 들고 구 본 오직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렸다.

중동2부 51명의 교사들은 2차 명령을 받은 전도특공대로 다시 느헤만 신발끈을 묶으려 한다.

성령의 열매

'아가' (Song of songs) 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②

우선 아가서에 나오는 주요 소재들을 잘 기억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먹고 마시 는 맛, 향로의 향, 자연의 아름다움 등이 아가서의 이미지를 구성하는 주요 소재들이입 니다. 솔로몬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낫고(1:2, 4:10), 그가 풍기는 향기는 향유보다 낫다고 기록한바(1:3, 13-14). 또한 여인에게 향유의 이미지를 적용시키기도 하고 (1:12, 4:10-11, 16, 7:8), 연인이 서로를 묘사하는데 자연에서 끌어온 온갖 이미지를 사용 하기도 한바(2:1-3, 9, 14, 17, 4:1, 5:12-15, 5:10-16, 6:49, 7:1-9). 향유, 향기 등 이러한 향에 대한 소재는 결국 구원됨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의 냄새 는 그의 신부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원수에게는 사망의 냄새인 것처럼 말이지요(고후 2:15, 16).

그리고 아가서를 읽을 때에는 '정원' (Garden)이라는 이미지를 상상하면서 읽으시 길 바랍니다. 그 동안양서 정원은 패락을 누리는 특별한 장소였는데, 우리는 최초의 동산인 에덴을 생각해보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4:12절의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 이 나옵니다. 이것은 여인의 순결함, 즉 자기 연인에게만 헌신한 모습을 나타내준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정원이든 육체적이든 사랑하는 대상이 하나뿐인 것이 바로 예덴 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동산에서 오직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 오직 한 사람 뿐인 배우자와 나누는 사랑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었을까요? 그러므로 주님께 서 다시 오시는 날에 새롭고 만만하여주시는 천국에서 나누게 될 영원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가서는 결혼한 부부가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아가서의 아름다운 고백을 실제로 느껴보면 어떻게 재만해 보는 것이합니까. 솔로 몬이 술매가 여인을 향해 고백하는 내용은 남편이,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 고백하는 내 용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 고백하고 생각되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생기거든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순결한 사랑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임을 생각하면서 충성되오! 만일 혼자가 아닌 분은 어떡하나요? 뭐가 걱정일까요? 영원한 우리의 연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솔로몬의 고백은 주님의 음성이요, 나의 고백은 주님께 드리는 고백 일만대요.

영원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부부가 나누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영원하고 위대 하고 연합하는 사랑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감격을 느껴보고, 어려움들도 반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남 편과 아들을 향해서!

(김동환 목사·출판국 지도)

내비의 그리스도의 본지니



후전선과 벽오지에서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인듯 스쳐가는 한 순간의 잊혀지지 않는 감동을 붙잡는다.

몇 주전, 화천에서 군공으로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를 면회갔었 다. '군대' 하면 떠오르던 부정적 느낌과는 달리 친구가 군문화에 군인교회는 유 약처럼 뿌요하고 따뜻한 바탕(?)의 장소였다. 명백한 계사교회 안에서 서로를 '형제'라 부르는 모습을 보며 또 한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다.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여 훈련기간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던 친구였지만 일 병이라는 계급으로 어느 정도 부대와 군인교회에 익숙해진 것 같았다. 하후방을 함께 보내고, 제대 후 처음으로 군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시작부터 머리를 아래로 향하고 다리를 철 빗면 채 공나랏로 가려고 준비하는 군인, 전입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미동도 하지 않는 군인, 친구를 찾으려든 듯 이리 저리 둘러보는 군인 등 여러 모습 안에서 또 예배는 시작되었다.

같은날은 계급의 간부들이 집사님의 모습으로 사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라는 모 습이 어색하지만 아름답게 느껴졌다. 내일을 떠나 군생활하는 장소를 떠나 한 마을으로 평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다. 역시 간부인 듯한 집사님의 대표기도 시간이었다. 지난 군생활을 생각하며 속 으로는 '저 사람도 평일에는 사병들을 힘들게 하겠지?'라고 불평하던 중, 한 쪽 가슴이 찡한 느낌을 받았다.

"주님, 오늘도 GP와 GOP, 벽오지 등에서 삼삼오오 예배를 드리고 있을 형제 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 군인교회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몇몇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저 후전선이나 산간에서는 주님을 섬기는 몇몇 부대원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 를 드릴 것이라는 기도를 들으면서 안타깝기도 했지만 감사했다. 나는 이들을 얼마나 기억할지 기도했는지...

같은 사병들을 섬기며 중보하는 친구를 보며 군선교 사역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다.

지금도 후전선과 벽오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기도한다

(이종원 기자)

교회소식 / 새가득

말씀

1. 2001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와 2001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가 6월 24일 있었습니다. 학문 및 세계, 일교, 개종을 원하는 성도들은 담당교역자에게 6월(6월10일)까지 신청서와 기 바랍니다.
2. 설교·찬송 대안 안내
안내에서 성경 찬송을 불러보신 분은 필히 빌린 장소에 반한 하시고, 직분자는 될 수 있는대로 세간사를 위해서 빌린 찬송·성경 찬송을 잘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1. 정로목사배고도회
장소: 11월(10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2. 안수집사회와 화요일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3. 전도위원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새벽기도회 후
장소: 교육관 109호
4. 남산전도회 임직원 정기성경회
장소: 21월(10일) 1900
대상: 각 남산전도회
(회장·부회장·서기
장·감사·전도부장)
5. 감동전도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500
장소: 배후가리교회
6. 삼일전도회 배고도회
장소: 6월(11일) 1830
장소: 배후가리교회
7. 2월(21일) 배고도회
장소: 13월(10일) 수요일배고도회 후
장소: 양바위교회

남산전도회

1. 바울 13회 배고도회
장소: 16월(10일) 1900
장소: OK 식당
2. 바울 6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40호
3. 바울 14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300
장소: 교육관 30호
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40호
5. 바울 13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900(무부담)

6. 바울 6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900
장소: 양바위교회
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8. 바울 14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300
장소: 교육관 30호
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1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30호

2001년도 제3차 학술세미나 안내

날짜	시간	학사자	장소	세제, 개종자, 입교자	장소	유아세제자	장소
6월 10일	13시	신경개교	교육관	교회론	교육관		
(주일)	1500-1530	(정해진 목사)	314호	(사경전 목사)	307호		
	22시	기독교	교육관	구원론	교육관		
	1600-1630	(정해진 목사)	314호	(이종대 목사)	307호		
6월 17일	13시	기독교개교	교육관	세례론	교육관	유아세제자	교육관
(주일)	1500-1530	(이종대 목사)	407호	(김병대 목사)	307호	(이종대 목사)	314호
	22시	문답	교양반	문답	교양반		
	1600-1630		장소		장소		

- 6월 24일 (주일) **찬양예배** 성인 학습·세례식 (저녁 찬양예배, 본당)
- 장소: 교육관 30호
2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2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2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2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3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4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5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6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7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8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1.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2.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3.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5.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6.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7.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8.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99.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100.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100

총헌증보의 창

1. 김성관 위임목사의 사역에 성령께서 동지하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절절한 통로로 사용하시어 주시라.
2. 김성관 위임목사의 남은 생애가 더욱 더 복음의 진리에 불들리게 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게 하소서.
3.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와 집사 및 모든 직분자가 진리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게 하소서.
4. 총헌회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성령의 통제를 받으며, 주어진 5대 목표를 성취하는 생명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5. 모든 위원회에 속한 기관들이 주어진 본분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함께 일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으로 함께 지어지게 하소서.
6. 총헌에 속한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첫 자리를 내어드리며, 성경 말씀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1. 바울 13회 배고도회
장소: 16월(10일) 1900
장소: OK 식당
2. 바울 6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40호
3. 바울 14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300
장소: 교육관 30호
4. 바울 17회 배고도회
장소: 15월(10일) 1500
장소: 교육관 40호
5. 바울 13회 배고도회
장소: 12월(10일) 1900(무부담)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III	오전 11:00	본당
IV	오전 12:00(무부담)	본당
V	오전 1:00(무부담)	본당
VI	오전 2:00(무부담)	본당
V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VI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IX	오전 5:00(무부담)	본당
X	오전 6:00(무부담)	본당
X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I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IV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V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V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VI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VI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IX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I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I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IV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V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V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VI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VI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IX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II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IV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V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V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V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VII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IX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I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IV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V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V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V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VI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IX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II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IV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V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V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VI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VII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IX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I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II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IV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V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V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V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VI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IX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1: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2: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3:00(무부담)	본당
XXXXXXXIV	오전 4:00(무부담)	본당
XXXXXXXV	오전 5:00(무부담)	본당
XXXXXXXVI	오전 6:00(무부담)	본당
XXXXXXXVII	오전 7:00(무부담)	본당
XXXXXXXVIII	오전 8:00(무부담)	본당
XXXXXXXIX	오전 9:00(무부담)	본당
XXXXXXXX	오전 10:00(무부담)	본당
XXXXXXXXI	오전 11:00(무부담)	본당
XXXXXXXII	오전 12:00(무부담)	본당
XXXXXXXIII	오전 1:00(무부담)	본당